

와즈카초 관광안내소와 그린 슬로우 모빌리티 투어

와즈카초 관광안내소

와즈카초 관광안내소는 와즈카초를 둘러볼 때 유용한 지도와 팸플릿을 제공하며 여행에 대한 다양한 어드바이스를 얻을 수 있는 곳으로, 관광객들이 제일 처음 들르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입니다. 안내소는 주요 도로변의 편리한 위치에 있으며, 뒷편으로는 아름다운 가마쓰카 차밭 언덕이 펼쳐져 있습니다. 안내소 안에는 관광명소, 체험 워크숍, 레스토랑, 이벤트 등 다양한 정보를 담은 안내 리플렛이 비치된 선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일본어로 제공되지만, 영어, 중국어, 한국어로 작성된 자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운터에는 직원이 상주하며 방문객의 질문에 응대해 줍니다(기계번역 앱을 활용한 다국어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와즈카의 차밭으로 뒤덮인 푸른 언덕을 좀 더 가까이에서 관광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자전거 대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여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이며, 요금은 1,100 엔입니다.

안내소 내 매점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된 차와 녹차 관련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와즈카초 관광안내소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토트백과 데누구이(일본식 손수건) 등의 한정 상품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린 슬로우 모빌리티 '그차모'를 타고 즐기는 차밭 투어

와즈카초 관광안내소는 환경친화적인 관광 활성화의 일환으로 와즈카초에서 운영하는 '그린 슬로우 모빌리티 투어'의 출발 지점입니다. 이 투어에서는 친환경 전기차를 이용해 안내소에서 유명한 이시테라 차밭까지 왕복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 풍부한 가이드가 차량 운전을 담당하며, 와즈카초의 역사, 와즈카차의 특징, 그리고 차 재배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연간 작업 등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골목길을 따라 지역 상점을 방문하는 코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투어용 전기차는 '그린(Green)', '차(Tea)', '모빌리티(Mobility)'의 머리글자를 따서 '그차모'라는 애칭으로 불립니다. 그차모는 투어 참가자들을 태우고 차밭 사이의 좁은 길을 지나가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차밭, 고분, 그리고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사전 전화예약(일본어만 가능)을 해야 하지만, 자리가 남아 있는 경우 당일 참여도 가능합니다. 투어는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운영되며, 소요시간은 약 70분입니다. 운행 횟수는 하루 4회이며, 각 운행시각은 9:40~10:55, 11:10~12:25, 13:30~14:45, 15:00~16:10 입니다. 투어 요금은 성인 1,000 엔, 어린이(초등학생 이하) 500 엔입니다. 나라교통버스를 이용해 와즈카초를 방문하는 분들은 승차증명서를 제시하시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어 종료 후에는 소정의 기념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차모 차량은 2대만 운영되므로 투어 정원은 일요일에는 1~7명,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1~4명까지만 참여 가능합니다.

오시는 길

'나카와즈카(中和東)' 또는 '와즈카카와하라(和東河原)' 버스정류장에서 초록색 안내판 방향으로 도보 약 2분 자동차 또는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차장을 이용해 주세요.